『中國學』第84輯 (2023.09.30.) DOI http://dx.doi.org/10.14378/KACS.2023.84.84.2
pp.021-041. ISSN : 1229-9618

중국어 ‘겸류’의 형성과 기능전환의 상관성 분석*
- 형용사의 명물화와 명사의 형질화를 중심으로

김정필**

【목 차】

1. 서언
2. 품사의 기능전환과 품사전성
1) 개사의 어법화와 기능전환
2) 조사의 어법화와 품사전성
3. 수식어의 의미제약과 기능전환
1) 양사의 의미제약과 명물화
2) 부사의 의미제약과 형질화
4. 결어

【초록】
중국어에서는 형태변화를 나타내는 표지의 결핍으로 두 개 이상의 품사성을 지닌 많은 ‘겸류사’가 많다. 사실 ‘겸류사’의 탄생은 구문에서 품사의 다기능이 지닌 경계의 설정에 있었지만, 오히려 ‘양사가 형용사를 수식’하거나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비정상적 어법구조를 형성하였다. 본문은 어법화의 각도에서 개사와 조사의 어법화 과정을 ‘기능전환’과 ‘품사전성’이라는 두 가지 각도에서 대비하여 살펴보았고, 본래 품사가 지닌 전형적 ‘범주속성’의 ‘임시전환(游移)’현상에 근거하여 ‘기능전환’에 따른 ‘활용’이라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았다. 아울러 “양사가 형용사를 수식한다”는 주장에 대해 기존 ‘명물화(名物化)’ 관점에서 정도성 양범주의 공간화 관점에서 고찰하였으며, 또 “부사가 명사를 수식한다”는 공간 양범주의 ‘형질화(形質化)’라는 측면에서 양범주의 정도성을 통해 명사의 윤곽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았다.

【키워드】 겸류사, 명물화, 형질화, 양범주, 품사전성, 기능전환

* 본 논문은 2023년 5월 대한중국학회 춘계발표회 발표문을 보완 정리한 것임.
** 김정필.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jpkim21@gnu.ac.kr)

1. 서언

언어분석의 목적은 언어의 사용이나 학습에서 좀 더 쉽게 대상 언어의 특징을 잘 이해하도록 어법범주나 의미범주 등 각 범주 사이에 좀 더 선명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언어분석은 대체로 구문을 표현방식에 따라 진술문, 의문문, 명령문 등의 유형으로 분류하거나, 문장성분으로서 단어나 기타 어절 등이 구문에서 담당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각 문장성분을 주어, 술어 등과 같이 '-어'라는 이름으로 분석하였다. 대개 서구 언어에서는 품사분류의 기준은 어법 기능에 의해 유형화된 문장성문이 품사의 형태로 귀결되지만, 중국어에서는 이러한 유형화된 형태를 기준으로 문장성분과 품사를 매칭하기 어렵다. 그래서 구문에서 단어의 어법기능이 중첩되거나 형태적 동일성으로 인해 '겸류'라는 방식을 통해 이중성격을 지닌 상호 기능전환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영어와 같은 표음기호를 근간으로 한 언어가 지니는 이론체계에서는 형태를 기반으로 이론의 일관성을 추구하게 되면서, 중국어와 같은 표의문자를 근간으로 하는 언어가 지니는 무형태성 언어의 특수성을 경시하는 경향이 많았다. 물론 구문에서의 기능전환을 모두 형태적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으며, 비록 형태변화를 하는 영어나 한국어에서도 여전히 겸류성의 단어는 존재하고 있다. 다만 중국어에서는 기능전환의 경계를 시각적 형태로 파악하기 힘들어 한국어의 형용사형이나 명사형처럼 임시적인 용언화나 체언화의 형식으로 인식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어가 영어나 한국어와 같은 품사와 어법기능을 구별하는 형태 성분이 결핍되어 있다고 해서, 구문을 통해 인지하는 기능을 일정한 규율로 정립하고 일반화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구문에서의 기능전환 또한 기본적으로 청자와 화자가 문장성분의 성격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 과거에는 비교적 작은 범주를 깊이 있게 연구하거나 정밀한 논리적 체계를 규정하기보다는 각 언어가 지닌 전반적인 논리성 규율을 정립하는 경향이 많았지만, 근대 이후, 특히 서구 이론이 유입되면서부터 대부분 서구 언어의 이론체계에 근거한 개별성분의 정밀 연구에 천착하는 경향이 많다. 중국어 또한 구문분석과 어법체계에 관한 계통적인 연구보다는 개별성분의 기능을 세밀하게 분석하게 되면서, 품사와 문장성분의 관계는 오히려 '겸류'와 같은 더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어에서 '겸류'가 발생하는 주원인을 품사와 문장성분을 변별하는 형태 표지가 없다는 것에서 찾고는 있지만, 정작 의미·어법의 통합적 측면에서 품사

내부에 존재하는 '속성범주'의 양화(量化)를 통한 전형성을 찾는 인지적 접근이 더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서 품사가 지닌 '속성'의 '양범주'는 실사의 품사체계를 크게 시간성(동사), 공간성(명사), 정도성(형용사)의 삼차원 연계시스템으로 구분한 것으로, 각 품사가 지닌 삼차원 범주의 양적 변화가 문장기능의 전환을 유도하게 된다.[1] 즉 '시간성'은 동사 양범주의 전형적 속성이며, '공간성'은 명사 양범주의 전형적 속성이다. 또 정도성은 본래 부사의 속성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성질형용사가 지닌 전형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다.[2] 물론 이들 품사가 구문에서 서로 다른 기능을 하게 되면, 각 범주가 지닌 전형적 속성은 약화되어 양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양적 변화는 구문에서 어순이나 분포위치, 그리고 연계성의 수식성분이나 관계성분에 의해 속성의 '임시전환(游移)'[3]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문은 우선 동사와 개사, 동사와 조사 사이에 존재하는 어법화 양상 또한 '양범주'의 변화양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양사의 형용사 수식'과 '부사의 명사 수식'이 지니는 비논리적 공기 현상을 '기능전환'과 '품사전성'의 대비를 통해 품사와 문장성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중국어에서 '양사(量詞)'의 기능은 실사의 삼차원 범주 속성 중에서 명사가 지닌 공간성을 양범주로 계량하는 성분으로, 주어나 목적어 등에 위치하는 비전형범주(동사, 형용사 등)를 체언이 지닌 공간성의 범주로 윤곽화하여 공간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양사의 어법기능은 중심어가 지닌 속성범주를 공간성으로 양화(量化)'하여 경계의 윤곽을 그린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어가 지닌 영(零)형태의 특징으로 인해, "양사(수량사, 명량사)가 형용사를 수식한다"라든가, "부사(어)가 술어가 아닌 명사를 수식한다"는 등의 설명은 그 자체로 모순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즉 구문에서 양사가 수식하는 문장성분이 과연 '형용사'의 품사적인 특징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명사 기능을 하는 '체언(명사성)'으로 봐야 하는가를 되짚어 보게 한다. 왜냐하면 중국어에서 문장성분은 그 분포위치에 따라 기능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기능전환을 통해 드러나는 범주를 품사 그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지

1) 孙妍,「时间、空间、程度三维视野下的汉语词类连续统」,『文化综合』, 2022년 제10기. p99. 참조. 孙妍은 단순히 속성의 游移로 설명했지만, 필자는 이러한 속성 간의 '임시전환' 현상은 구문에서 기능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판단한다.

2) 물론 각 품사 내부에는 속성의 차이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품사 내부에서도 비전형적 속성을 지닌 것도 존재할 수 있다.

3) 이들 학자가 주장한 '游移'는 '동요하다. 왔다갔다하다'의 의미로 해석되나, 본문에서는 구문기능에 따라 임시적인 기능전환에 따른 속성의 이동으로 판단하여 '임시전환'이라고 임시적인 용어로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공간성의 명사는 '很女人', '很中国' 등과 같이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으면 정도성의 속성으로 '임시전환'이 되었다는 것이며, 정도성의 형용사 또한 "苹果红了.", "苹果还青着呢." 등과 같이 동태조사 '了, 着, 过' 등을 대동하면 일시적으로 시간성을 갖게 된다.

를 다른 언어의 형태 변화가 지니는 양상을 대조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동사이면서 영어에서는 명사 속성을 담보하고 있는 동명사가 있으며, 또 한국어에서는 형용사성 성분이 체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임시적인 형태변화를 거친 '명사형'이 있다. 따라서 중국어 또한 양사의 수식을 받은 형용사에 대해서는 본래 지니고 있던 속성의 양범주가 이미 공간성으로 전환된 체언으로 보아야 하며, 문장성분의 자격으로도 성질을 묘사하는 것이 아닌 윤곽화된 공간의 경계를 표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양사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양화의 과정을 거쳐 '명물화'된 '영(零)형식의 체언(명사어)'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연구에서도 여전히 중국어에서는 기능이 속성과 다르게 전환된 문장성분을 품사의 명칭으로 지칭하거나, 한국어에서도 '활용형'을 독립적인 단어로 간주하는 경향은 개별 품사와 문장성분을 일치시키는 서구 언어와 동일시하는 인식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중국어 구문에서 양사가 수식하는 것은 체언 기능의 형용사를 품사성의 형용사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형명사'와 같은 '겸류성' 단어를 지칭하는 또 다른 명칭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양사가 형용사를 수식한다"는 주장의 모순성을 기존의 '명물화(名物化)'라는 각도에서 접근하여 양사의 수식을 받는 형용사의 공간화된 양범주를 윤곽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울러 "부사가 명사를 수식한다"는 주장 또한 동일한 각도에서 공간성의 양범주를 '형질화(形質化)'[4]함으로써, 기존 명사가 지니고 있던 속성범주의 윤곽을 해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본다.

2. 품사의 기능전환과 품사전성

중국어에서 '겸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품사와 문장성분 사이에서 상호 '기능전환'이 일어나는 '겸류사'가 어떻게 생겨났으며, 또 이러한 '겸류'와 '어법화' 과정을 거쳐 완전히 허사로 '품사전성'이 일어난 성분을 대비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실 중국어에서 '품사전성'은 실사에서 허사로 진행되는 '어법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그 반대과정의 어휘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중국어 개사는 실사와 허사 사이의 '겸류'현상으로, 본래 문장의 술어로 기능하던 동사가 제2의 동사를 만나면서 허사인 개사로 어법화가 일어난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우선 '기능전환'의 대표적인 성분 개사와 어법화를 통해 '품사전성'이 일어난 '조사'를 대비하여, 그 차이점

4) 여기서 말하는 '형질화(形質化)'란 형용사의 명사화를 지칭하는 '명물화(名物化)'에 대산 상대 개념으로 "품사로는 공간성을 지닌 명사지만, 구문에서 용언 기능을 하는 정도성의 형용사성으로 질적 변화가 일어난 성분"을 의미한다.

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개사의 어법화와 기능전환

현대중국어에서 어법화 과정에는 크게 '품사전성'이 완전히 일어난 것과 여전히 '기능전환'이 지속되는 성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우선 '품사전성'이 일어난 성분으로는 '조사'를 들 수 있으며, '기능전환'의 과정에 있는 것으로는 '개사'를 들 수 있다. 물론 개사 중에서도 다시 동사로 환원되지 않고, 보어(일명 후치개사)로도 사용되지 않는 被, 使, 把, 让 등은 거의 '품사전성'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개사 기능을 주로 하면서도 실사로도 사용되고 있는 给, 在 등의 경우는 완전한 '품사전성'이 아닌 여전히 '기능전환'의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본 절에서는 개사 기능을 하는 품사 중에는 여전히 술어나 보어(일명 후치개사)로 환원되어 사용되는 在, 给 등은 아직 실사와 허사 사이에서 상호 간 '기능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겸류사'에 대한 의미‥어법적 접근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엄밀히 말해서, 진정한 '겸류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동등한 층위의 실사와 실사 사이, 그리고 허사와 허사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만약 개사처럼 허사와 실사 사이의 '겸류'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어법화'와 '어휘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실사와 허사 사이의 '기능전환'을 어떠한 기준으로 고찰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면 우선 중국어 '给'와 '在'의 품사와 어법기능을 대비하여 살펴보고, 어떻게 기능전환이 일어나는지 문장성분과 분포위치의 어순관계를 통해서 살펴보자.

(1) 他给我一本杂志.
(2) 他给我买一本杂志.
(3) 他把一本杂志送给我.

중국어 어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어순과 허사, 그리고 분포위치를 기반으로 어법기능을 분석해보면, 위에 제시된 세 예문에서 사용된 중국어 给는 모두 세 개의 기능을 지닌 '겸류사'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현재까지 예문(1)의 '给1'는 동사로써 술어이며, 예문(2)의 '给2'는 동사가 허화된 개사로 기능한다. 물론 예문(3)의 '给3'도 개사라는 의견이 많지만, '给3'와 개사목적어(체언) 사이에 '了'와 같은 동태조사가 삽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개사 '给2'와는 다른 점이 있다. 만약 수여동사인 '给'의 의미범주를 나누어 한국어 번역의 '~에게 주다'에 대비시켜 보면, '관계성(에게)'과

‘행위성(주다)’이라는 두 개의 초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给1’의 의미초점은 ‘(～에게) **주다**’의 ‘동작 행위’에 있으며, ‘给2’는 ‘**～에게** (주다)’의 행위자와 수여자의 관계에 초점이 주어진다. 그런데 이러한 이와 같이 접근해 보면, ‘给3’의 의미초점 또한 ‘～에게’보다는 ‘**～주다**’의 ‘행위’에 주어진다는 점에서, 어법화된 개사라기보다는 ‘기능전환’의 실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담화의 과정에서 전달되는 정보량은 초점 부분이 강조되고, 비초점 부분은 생략되거나 약화된 상태로 인지된다. 만약 이러한 정보의 전달 과정에서 보더라도, ‘给2’는 독자적인 문장성분으로 기능하기보다는 ‘기능전환’을 한 ‘활용형’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시 给3은 두 가지 각도에서 고찰할 수 있는데, 우선 후행하는 명사(어)와 우선 술목구조로 결합한 给2와 동일한 기능의 개사로 보는 경우이다. 하지만 만약 문장성분으로서 보어는 용언이기 때문에, 행위의 시간적 흐름을 명사성의 개사구가 보어가 된다는 주장에는 모순이 생긴다. 오히려 给3를 개사가 아닌 실사인 동사에서 온 것으로 보고, ‘给’를 보어로 보거나 ‘술목구조’를 보어로 간주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사실 给3가 실사일 것이라는 주장은 북경을 중심으로 한 보통화에서 ‘给’와 목적어 사이에 동태조사 ‘了’가 부가될 수 있다는 점인데, 이때 ‘给3’가 개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다시 두 가지 서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첫째, ‘给3’의 어법화 과정을 개사가 아닌 ‘형태소’라는 전제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한국어에서처럼 선행하는 술어와 결합한 ‘복합동사’를 형성하는 ‘형태소’로 보는 견해이다. 둘째는 만약 아직 실사와 허사의 ‘기능전환’이라는 중간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면, 여전히 보어는 실사의 자격으로 문장성분이 되어 독자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하면, ‘给3’은 실사인 동사로 그 자체로 문장성분인 보어가 되거나, ‘送给’를 임시로 복합동사화된 ‘신조어’로 가는 과도기의 성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给’를 구문을 벗어난 독자적인 단어로 판단한다면, 여전히 실사인 동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어법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개사의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시 ‘给’와 유사한 기능을 지닌 ‘在’를 통해, 유사한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4) 他现在在宿舍. 그는 현재 기숙사에 있다.
(5) 他在宿舍睡觉. 그는 기숙사에서 자고 있다.
(6) 他住在北京饭店. 그는 북경호텔에 투숙하고 있다.

중국어 ‘在’ 또한 ‘给’와 거의 유사한 기능을 하며, 예문(4)의 ‘在1’는 실사로 동사이며, 예문(5)의 ‘在2’는 허사로서 개사 혹은 진행형의 기능성분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예문(6)의 '在3'도 '给3'과 같이 개사목적어(체언) 사이에 '了'와 같은 동태조사가 삽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태소나 독자적인 단어로 볼 수 있다. 비록 '在'는 수여동사는 아니지만 여전히 수여동사인 '给'처럼 한국어 '~에 있다'에 대비시켜 보면, '장소'라는 공간 '상태'와 '존재'라는 '출현행위'의 두 초점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즉 '在1'의 의미범위는 '(~에) 있다'에 초점을 두어 '존재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在2'는 '~에(서)(동사)'와 대비되어 '장소'라는 공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在3' 또한 '장소'보다는 '존재'에 초점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실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중국인의 인지 사유에는 두 개의 다른 기능을 지닌 단어의 원형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는 언어학자들의 논증과 귀납을 좀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요인은 중국인의 사유에는 어떠한 인지과정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고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조사의 어법화와 품사전성

중국어에서 '품사전성'은 실사에서 완전한 어법화를 거쳐 조사로 전환된 경우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대체로 음운이나 성조의 변화가 동반된다. 이것 또한 중국어만의 형태 변화로 볼 수 있는데, 현대중국어로 오면서 나타난 이음절화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음절화와 어법화의 관련성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데, 고대중국어에서 단음절어였던 단어가 현대중국어에서 완전히 허사로 기능하는 경우와 더 이상 단어가 아닌 형태소로만 활용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세 개의 구조조사로 사용되는 '的', '地', '得'는 본래 '과녁(的)', '땅(地)'을 지시하는 명사와 '얻다(得)'라는 동사로서 단독으로 사용되었으나, 이음절화 이후에 단음절의 的와 地는 단어의 능력을 잃고, '目的'나 '的确' 등에서처럼 형태소나 어법성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록 '得' 또한 아직까지 술어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取得', '获得' 등과 같은 단어의 형태소나 보격조사로 활용되면서 어법화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사실 현대중국어에서 '품사전성'이 일어났다는 형태적 증거는 청각적 효과를 통해 드러나며, 성조의 경성화와 음운의 변화 등은 위에서 언급했던 구조조사 的와 地는 형태소 'di'와 허사 'de' 등으로 성조 및 발음의 차이에서 볼 수 있다. 좀 더 접근해 보면, '的'가 독자적인 품사가 아닌 형태소로 사용되는 '的确'와 '目的'에서는 성조가 [dí]와 [dì]로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선행형태소와 후행형태소의 차이가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도 더 연구할 가치가 있다. 사실 '得'의 경우는 동일한 발음의 'dé'가 동사와 조동사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 완전한 조동사 'děi'로 사용된다는 점에서도 경성의 보격조사 'de'와 더불어 더 연구의 필요성이 나타난다. 따라서 중국어에서 광의의 형식으로 파악하는 '분포위치'와 '어순'의 역할은 단

순히 구문구조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소 내부의 구조 차이나 청각적 변화 양상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한자 기호가 지닌 시각적 형식의 동일성을 어떠한 기준으로 서로 다른 품사나 형태소의 특징으로 인지할 것인지, 또 중국어에서 '겸류'가 지닌 단어의 원형을 어떻게 변별해야 하는지도 이후의 새로운 연구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한다.

(7) 这件事办成了你也会得些好处. 이 일이 성사되면, 너도 약간의 이익을 얻을 거다.
(8) 凡符合条件者得依法申请. 무릇 조건에 부합되면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9) 这把刀钝了, 不得用. 이 칼은 날이 무뎌져서 쓸모가 없다.
(10) 要取得好成绩, 就得努力学习.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11) 她去得, 我也去得. 그녀가 가겠다면, 나도 가겠다.
(12) 天气热得很. 날씨가 너무 덥다. 이상 (사전7, pp.270-273)

위의 6개 예문은 모두 『现代汉语词典』(제7판)에서 가져온 것으로, 예문(7)은 동사, 예문(7)-(9)는 모두 조동사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조동사로 기능하면서도 예문(8)와 예문(9)은 [dé]로 동사와 동일하게 발음되지만, 예문(10)는 [děi]로 발음된다는 점에서 조동사 내부의 차이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해 보인다. 예문(11)와 예문(12) 또한 모두 조사로 기능하지만, 이 두 예문 또한 성질이 약간 다르다. 따라서 조사 '得'의 경우에는 이미 '품사전성'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만, 여전히 동일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 '겸류'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도 여전히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상 구조조사에서 살펴본 중국어 어법화 과정은 '기능전환'과 '품사전성'의 두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청각적 변화양상을 광의의 형태와 관련하여 살펴볼 필요도 있다.

다시 이미 '품사전성'이 일어난 조사 '了'의 다기능과 품사가 전환되는 '겸류'가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了'는 동태조사 '了1'과 어기조사 了2로 구분하고 있으며, 또 종종 어떤 학교문법의 교재에서도 자동사나 형용사 뒤에 오는 제3의 기능 '了3'로 구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다만 '了'는 '기능전환'에 따른 품사의 구별은 없다는 점은 '겸류'와 다르며, 그 기능의 차이는 분포위치의 차이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교학어법에서 어법의미로 설명하는 '완료'와 '완성', 그리고 '변화' 등의 개념 차이도 고려하여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변화'는 형용사 술어와 연관성이 있기에 차치하고라도, 동일한 동사술어가 담당하는 '완료'와 '완성'도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3) 昨天我看了那个电影. 나는 어제 그 영화를 보았다.

(14) 看了电影我就回家去. 영화를 보고, 나는 바로 집으로 갔다.

(15) 去年我生了一场大病. 작년에 나는 큰 병을 앓았다.

(16) 我买了五个笔记本了，再买两个就够了. 나는 만년필 5개를 사고, 또 두 개를 더 사서 이제 충분하다.(더 이상 필요 없다.)

(17) 他睡了两个小时了，该起来了. 나는 두 시간을 잤기에, 당연히 일어났다.

예문(13)에서 예문(15)의 세 예문은 모두 동사술어 뒤에서 동태조사로 기능하고 있기에 모두 동작이 완료된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예문(16)과 예문(17)은 동태조사와 어기조사 두 개의 '了'에 변별은 분포위치와 어법의미의 차이를 고려하여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 두 개의 '了'가 모두 조사라는 동일한 품사에 귀속되는 것은 구문에서의 어법의미의 유사성과 무관하지 않으며, '了2'나 '了3' 또한 조사 了1이 분포위치에 따른 의미항의 변이형로 볼 수 있다.

우선 '了1'는 '완료' 혹은 '완성'이라는 두 가지 어법의미로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了2'의 어법의미는 과연 '了1'과 다를 수 있다는 각도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완료' 혹은 '완성'을 동일한 기능으로 파악한다면, 위에 언급한 '了1'의 동태조사와 '了2'의 어기조사 또한 분포위치에 따라 '완료' 혹은 '완성'의 의미로 설명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 왜냐하면 '了3'에서 두 개의 기능이 겹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어법의미의 유사성으로 인해, 그 결합의 가능성이 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완료'과 '완성'은 한국어에서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며, 이러한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중국어와 중국인의 인지과정을 이해하는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가 생각하는 '了'의 분화는 단순히 '어법기능'의 차이에 의해 분화되었다기보다는 서로 다른 구문 환경인 술어 뒤의 '동태성'과 구문 뒤의 '어기성'이라는 어법의미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동일시되는 '완료' 혹은 '완성'이라는 개념 또한 내부의 속성을 변별하는 특징으로 출발할 필요가 있다. 대개 '완료'와 '완성'은 일반적으로 시간성에 근거한 '了'의 어법의미를 동일한 시각에서 보고 있으며, 교학어법이나 어법교재 또한 이에 근거하여 차이가 없는 것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좀 더 개념적인 측면에서 세밀히 접근해 보면, '완료(完了)'와 '완성(完成)'의 개념범주는 그 경계와 초점이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한국어에서 '완료(完了)'는 "완전히 끝마침"으로 완결(完结)과 유의성을 지니지만, '완성'과는 약간 다르게 설명되고 있다. 또 영어에서는 [명사] completion, [동사] complete, finish, (formal) conclude (=끝내다) 등으로 해석되며, 문법에서는 시제(tense)와 연계할 경우에는 'perfect'로 이해된다. 다시 한국어에서 '완성(完成)'은 "완전히 다 이룸"으로 해석되고, 영어에서는 [명사] co

mpletion, [동사] complete, finish, get (sth) done 등으로 해석된다. 두 언어에서 다르게 해석되는 '끝마침'과 '이룸', 그리고 conclude와 get (sth) done의 두 의미에서 "완료는 개별 동작 혹은 행위의 끝마침"을 나타내며, "완성은 사건 전체를 이루어졌음"을 나타내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태가 나타내는 동작, 행위의 움직임이 '완료'된 것과 사건 전체의 과정을 나타내는 '완성'이 구별됨을 알 수 있다.

3. 수식어의 중심어 제약과 공기관계의 논리성

중국어에서 특정 어휘가 문장성분으로서 구문에서 하는 역할은 하나에 한정되지 않지만, 대개 체언과 용언을 기반으로 특정 품사가 담당하는 주 역할은 일정한 제약을 하는 것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영어와 같은 표음기호형 언어에서는 개별 품사와 문장성분의 관계를 일정한 형식을 통해 일치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한국어 또한 문장성분은 기능과 형태를 일치시켜 사용하고 있다. 다만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는 구문에서 기능에 맞게 변화된 형태의 성분이 단어로 귀속되느냐의 여부에 차이가 있는데, 중국어에서는 문장성분의 기능변화와 단어의 형태가 전혀 변화하지 않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그런데 구문분석에서 수식어와 중심어의 공기관계를 품사 본래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부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와 '양사의 수식을 받는 형용사'라는 주장은 기본적인 언어의 어법규정과 논리구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영어나 중국어처럼 '술목구조'의 언어가 제시하는 논리체계에서는 "부사는 명사를 수식하지 못한다"고 규정되고 있으며, 일부 특정 환경에서의 예외가 인정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많은 학자가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의 주목적은 언어의 교제 과정에서 화용적으로 변화하는 이러한 다양한 양상에 대한 일정한 패턴을 찾기 위해서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발화과정에서 수의적으로 변화하는 구문성분의 기능전환은 이미 구문에서의 임시 활용, 수식어(부사)에 의한 강제적 기능전환, 의미 내재적 성질의 전환 등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임시 활용이든 기능전환이든 혹은 의미 내용의 변화이든 간에 이러한 변화양상을 어떠한 이름으로 정립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양사와 공기하는 형용사의 어법기능은 이미 '명물화(名物化)'된 명사성의 체언이며, 부사와 공기하는 명사 또한 '형질화(形质化)'된 형용사성 용언으로 간주하고 접근해 보고자 한다.

1) 양사의 의미제약과 명물화

중국어에서 '양사가 형용사를 수식'하는 어법 현상에 대해, 최근 연구에서는 여전히 '비정상적 결합(超常搭配)'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논리적 결합에 관한 인지적 접근은 이미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명물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또 다른 문제는 명사성의 체언으로 기능하는 문장성분을 그대로 형용사로 지칭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중국어의 무형태변화와 품사와 문장성분이 형태적으로 동일한 서구적 사고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명사가 아닌 동사나 형용사가 주어나 목적어 등의 체언으로 기능전환을 하면서 생기는 일이다. 이때의 기능전환은 관형어나 양사의 수식을 받게 되는 환경에서 시간성이나 정도성을 지니고 있던 동사나 형용사가 '공간성'으로 인지되기 때문이다. 즉 기존 연구에서 '명물화' 현상을 고찰하게 된 것도 구문에서 기능전환이 일어난 동사나 형용사가 체언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은 인지했지만, 여전히 본래 개별 품사와 형태상의 변화가 없어 명사라고 지칭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전히 개별 품사와 문장성분의 경계를 구분하는 명칭의 설정이 필요해 보이며, 영어에 동명사가 있는 것처럼, 중국어에도 '형명사(形名词)'와 같은 새로운 용어를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

(18) 나는 아름다운 그녀를 사랑한다.
(19) 나는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랑한다.
(20) 我爱美丽的她.
(21) 我爱她的美丽.
(22) I love her beautiful.
(23) I love her beauty.

우선 위의 중국어 예문(20)과 예문(21)에서 사용된 형용사 '美丽'를 한국어와 영어를 대비해서 살펴보면, 서로 다른 기능하는 성분의 차이를 보여주는 형태상의 변화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즉 한국어 관형형의 '아름다운'과 영어의 형용사 'beautiful'은 구문 속에서 체언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인 명사형이나 명사(아름다움/beauty) 변화를 하게 되는데, 다만 임시적인 변화 형태인 한국어에서도 품사로 귀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국어 또한 구문에서의 어법 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품사의 양범주가 상호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영어와 같은 품사명이 아닌 양범주의 전이를 알려주는 용어를 선택하여 인지적 사고를 바꿀 필요가 있다.

대개 형용사의 주요 어법 기능을 설명할 때, 수식언으로 기능하는 관형어와 부사

어, 그리고 용언으로 기능하는 서술어 등은 모두 용언성을 지녀 양범주의 전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양사의 수식을 받는 형용사는 구문에서 용언으로 기능하지 않으며, 내부 속성에서 양범주의 전이가 일어나서 체언으로 기능하는 공간성의 경우에는 정도성 양범주를 지닌 형용사와 다른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것은 과거의 연구에서는 언급되었던 '명물화(名物化)'의 주장과 인지적 측면에서 일맥상통하게 되며, 한국어의 임시형에서처럼 '零형식'의 '명물화(名物化)'를 인지하도록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까닭에, '겸류사(兼类词)'라는 특수한 범주의 명칭이 나타났으며, 기능의 변화 이후에도 '형용사'라고 지칭하는 것은 원형 품사의 정도성 범주와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어에서도 형용사가 구문에서 양사의 수식을 받아 공간성의 체언으로 기능하게 되었을 경우, '명물화(名物化)' 혹은 '명사화'를 거쳐 '체언'으로 전환된 '활용사(活用词)'라고 부르던지, 아니면 '겸류사(兼类词)'라고 부르든 간에, 명칭에 대한 경계는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5] 필자는 영어에도 임시 활용의 '동명사(动名词)'가 있듯이, 중국어에서 형용사가 체언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형명어(形名语)' 혹은 '형명사(形名词)'라고 지칭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6]

그런데 최근 연구에서 '양사가 형용사를 수식'한다는 사실을 '비정상적 결합(超常搭配)'으로 인지하지만, 수식어의 기능전환과 중심어의 기능전환이라는 서로 다른 각도의 두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양사의 기능전환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관점을 살펴보면, 우선 惠红军(2011)는 '양사의 형용사 수식'을 양사의 사용범위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한다.[7] 물론 이러한 양사와 형용사가 만나는 비정상적 공기관계가 이루어지는 원인은 보편적으로 인지하는 규율에 반하는 수사 혹은 화용적인 효과에 있으며, 정상적인 규율(常规)을 벗어난 어법관계가 형성된 것은 화자나 작가의 의도에 의한 주관성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상적 규율과 대조되는 언어의 관습성은 비록 대화의 성립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양사의 기능전환은 어떻게 어법화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문부호를 던질 수밖에 없다.

(24) 看来没法迈出这条门了. (肖仁福, 『空转』)

---

5) 唐善生(2000)은 부사의 수식을 받는 '추상명사'를 '겸류사'와 '활용사'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6) 필자는 唐善生(2000)이 구분한 '겸류사'와 '활용사' 중에서 '활용사'가 부정사의 직접 수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명사성이 강한 속성을 지녔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원형 품사가 형용사에서 명사로 기능전환을 한 것은 '형명사'로, 명사에서 형용사로 기능전환을 한 것을 '명형사'로 규정한다면 좀 더 선명한 구분이 되지 않을까 한다.
7) 惠红军(2011), "중국어에서 양사는 동사(동량사) 및 명사(명량사)와 공기하게 되는데, 양사의 사용범위에 관한 규범의 설정은 연구자나 중국어 사용자 및 중국어 교육자 등에 모두 골치 아픈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汉语量词超常搭配的动因分析」, p.1.

(25) 这条门她进得少，但她熟悉、亲切.（古华,『芙蓉镇』）

(26) 那几根怪乎乎的洞还在，那不就是他们吗?（毕四海,『财富与人性』）

본래 양사 '条'는 일정한 선형으로 윤곽화된 대상을 지칭하는데, 본래 예문(24)에서 목적어 '门'은 방형(方形)의 윤곽을 지녀 선형성을 표시하는 양사 '条'의 수식을 받는 것이 어색하다. 하지만 중심어 '门'이 양사의 기능전환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러한 비정상적 구문을 구성하게 된 것은 화자가 독자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门'은 방형의 객관적 형상이 아니다. 즉 배경과 대비되는 선형을 초점으로 삼아 '门'의 형상이 방형이 아닌 서술어의 동작방향과 대비되는 선형으로 인지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구문에서 작가가 바라보는 '门'의 이미지는 쉽게 '迈出'하기 좋은 선형의 형상인 문지방(门槛)을 경계로 표현함으로써, 일반적으로 인지되는 방형의 '门'과 차별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8]

따라서 지금까지 "수량사가 형용사를 수식한다"는 비정상적인 논리구조를 양사의 기능변화, 즉 변이형으로 설명을 한 것은 아마도 작가가 어떤 양사를 선택했느냐에 초점을 두고, 형용사와의 공기관계를 파악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사는 앞에서 언급한 조사처럼 그 위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고정적이며, 이미 본래 의미에서 어법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기능전환을 통해 변이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9] 아무튼 '양사의 형용사 수식'은 여전히 중국어의 기본 규율을 벗어난 변이성 특징을 지녔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0]

다시 형용사의 기능전환이 일어난다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물론 중심어가 지닌 윤곽의 차이에 따라 양사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양사가 변이한다는 주장은 양사의 기능전환을 하는 것이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오히려 서로 다른 양사를 선택한 것은 중심어를 인지하는 화자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표지로써, 양사가 수식하는 것은 형용사성을 지닌 대상의 공간범주를 윤곽화한 것으로 파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8) 위의 예문는 본래 '门'은 '条'의 수식을 받을 수 없으나, '卖'의 경우는 여러 개의 문짝(门扇, 门板 등) 중의 하나로 본다면 가능하다. 만약 예문의 동사 '迈'와 양사 '条'가 성립하기 위해는 '门'의 의미가 ' 문턱(门槛)'으로 사용된다면 성립할 수 있다. 예문(25)도 같은 각도에서 볼 수 있다.

9) 예를 들면, 赵静贞(1983)이 주장한 "수량사(数量词) '一丝'가 '虚用'되면 본래의 계량 작용을 하지 못하고, 형용하거나 수식작용을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여전히 형용사의 기능전환이 아닌 수량사가 '一丝'가 어떻게 변이되어 사용되는지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0) 우선 郭锐(2006)은 형용사의 기능전환의 가능성에 대해 "언어의 끊임없는 변화는 수시로 새로운 용법과 신조어를 형성하듯이, 만약 새로운 용법이나 신조어의 사용이 비교적 보편적이고 수용성이 강하여 안정성을 지니면, 그 새로운 용법은 단어의 기능을 고찰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7) 看，你脸上有两块红. (吴春相, p.29) - 붉게 뭉친 부분
(28) 窗外已露出令人陶醉的几片嫩红. (吴春相, p.29) - 여러 개의 조각

다시 말해, 위의 두 예문에서 '红'과 '嫩红'은 '붉다'라는 형용사 본의의 속성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块'나 '片'이 제시하는 일종의 크기 범주로 계량화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이러한 계량작용은 주관적 현저성에 따라 선택되어 긍정은 대량(大)으로, 부정은 소량(小)으로 양화되어 나타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긍정부정 중에서는 긍정을, 대소 중에서는 대(大), 다소 중의 다(多) 등 비교적 대량을 계량의 중심으로 삼은 인지 사유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다.

(29) 进入国道前，我买了两瓶葡萄酒和一条烟. (담배 한 보루)
(30) 这女人有四十多岁年纪，睡眼惺忪，嘴里叼了根烟. (담배 한 개피)

위의 예문(29)과 예문(30)에서 동일한 명사 '烟'이 서로 다른 두 양사의 수식을 받고 있다는 것은 명사가 지니는 모양의 윤곽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29)의 '烟'은 열 갑의 담배를 하나로 묶은 보루를 가리키고, (30)에서는 낱개의 담배 한 개비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연구에서 양사의 변이를 주장한 것은 양사의 선택으로 지시하는 사물(烟)이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지시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무튼 양사의 비정상적 결합(超常搭配)이든 형용사의 기능전환이든 어법체계의 기준(常规)에서 벗어난 기능의 전환은 단순히 한 개의 원인으로 갈무리할 수 없으며, 다방면의 규율성 요소가 상호 함축되어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양사+형용사'의 조합은 양사의 기능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양사의 지배를 받는 형용사가 명물화를 통해 체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2) 부사의 의미제약과 형질화(形质化)

지금까지의 교과서나 학교어법에서는 부사가 명사를 수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가르쳐 왔으며, 부사의 의미적 성질이나 어법 특징에서도 명사와 공기관계를 통한 수식구조가 성립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근 많은 연구에서 '부사+명사'의 수식관계뿐만 아니라, '정도부사+有+명사'의 구식을 통한 정도부사와 명사의 공기관계가 성립함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명사+부사'의 구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일정한 조건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최근 실사의 품사체계는 크게 시간성, 공간성, 정도

성의 삼차원의 연계시스템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즉 시간성은 동사의 기본특징이며, 공간성은 명사의 기본특징이고, 또 정도성은 형용사의 기본특징인데, 이들 속성이 기능전환에 의해 상호 전환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 품사 사이에는 기능의 변화에 따라 각 범주가 지닌 속성은 '임시전환(游移)'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공간성의 명사 또한 很女人, 很中国 등과 같이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으면 정도성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또 정도성의 형용사 또한 "苹果红了. ", "苹果还青着呢. " 등과 같이 동태조사 '了, 着, 过' 등을 대동하면 시간성을 갖는다.[11]

이러한 논의 이전에도, 중국어에서 '부사의 명사 수식에 관한 논의'는 크게 세 가지 이론이 존재하였다. 첫 번째는 '词性转变论'으로 부사어의 기능에서 출발하여 부사가 명사의 기능을 강제로 변하게 하여 임시형용사의 성질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으로, 胡明扬(1992)에서 주장되었다. 이것은 부사어가 구문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가를 고려한 고찰로, 부사어가 수식어로서 지니는 기능은 명사의 기능을 '형질화'하는 것에 있다고 본 판단이다. 이 주장은 필자가 본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과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한국어의 형용사형, 명사형 등 구문에서 변화하는 중심어에 초점을 두고 중국어에도 적용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 이것은 고대중국어에서 '활용'을 중심으로 구문에서 품사성이 임시로 변화하는 것과도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한국어의 인지처럼 중국어에서도 '영(零)형식'을 인지한다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두 번째의 '功能游移论'은 명사의 특수한 기제 기능에서 출발하여, 명사 활용의 근원적인 원인이 명사의 '공간 속성'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副+名'의 현상은 명사 기능의 이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张伯江(1994)에서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관점 또한 명사의 기능전환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词性转变论'과 출발점은 같다고 할 수 있으나, 명사 자체에 기능전환의 내재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세 번째 '语义量度论'은 명사의 의미가 성질(词性) 변화의 기제를 가지고 있는가에서 출발하여,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명사는 임시로 '量度义'를 부여받음으로써 부사가 명사의 기능전환을 촉진한다는 것으로 张谊生(1996)이나 谭景春(1998)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이 주장은 의미의 '量度'문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실 '量度'문제는 위계성(位阶性)[12] 명사가 어법기능의 전환에 따라 임시로 '형용사성

11) 孙妍,「时间、空间、程度三维视野下的汉语词类连续统」,『文化综合』, 2022년 제10기. p99 참조. 孙妍은 단순히 속성의 游移로 설명했지만, 필자는 이러한 속성 간의 동요 현상은 구문에서 기능전환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판단한다.

12) '位阶性'은 명사 내부의 의미범주에 일정한 계층 혹은 단계를 지니고 있거나, 구문의 형성과정에서 일정한 사물 사이의 관계를 통해 순서나 정도를 파악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의미'를 부여받음으로써 용언으로 기능한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무튼 위의 세 가지 관점은 서로 구체적인 해석을 다르지만, 모두 명사의 어법기능이 전환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는 면을 보인다. 张谊生(1996) 또한 구문에서 명사의 어법기능이 바뀔 수 있는 것은 명사가 형용사의 기능은 내재하고 있다거나 혹은 임시로 형용사로 활용된다는 것 등의 차이가 존재할 뿐, 위에 언급한 다수의 주장이 기본적으로 일치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한 가지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즉 구문에서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형용사성의 체언을 어떻게 지칭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唐善生(2000)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명사가 형용사로 직접전환을 하는 유형은 '兼类词'와 '活用词'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13]

(31) 他穿上这身服装，多气派.

(32) 从前我也跟过一个人，人倒是很规矩，又不赌不嫖，就是一肚皮恶水，…….

위의 예문에서 '명형겸류사'인 '气派'와 '规矩'가 정도부사나 부정부사의 수식을 직접 받는 경우는 형용사가 되며, '多有气派'나 '很有规矩'에서는 명사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 여기서 우리는 '명형겸류사'가 지닌 용어의 어순에도 주의를 해야 하는데, 만약 '명형겸류사'가 아닌 '형명겸류사'의 존재 여부와 어순이 지닌 품사성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아무튼 唐善生(2000)이 주장하는 '活用词'는 '명형겸류사'처럼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기는 하지만, 일반형용사와 같이 부정부사의 직접 수식을 받지 못하는 '福气'나 '名望'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그는 이러한 유형은 '겸류사'가 아닌 명사로서 구문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과연 임시적 '활용'을 굳이 '활용사'라고 하여 품사성을 주어야 할지도 의문이다.

(33) 刘喜好福气.

(34) 我今天请几个很名望的教授吃饭，可这个跑堂一点面子也不给，…….

우선 그의 설명을 보면, 위의 예문에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福气'나 '名望'는 앞의 예문(31)과 예문(32)의 '气派'나 '规矩'처럼 정도부사와 '很有+명사'의 구식을 형성하지만, 부정부사 '不'의 직접 수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명사로 귀납하고

또 위계성은 내부에 지니는 것 이외에도, 구문의 형성과정에서 서로 대비되거나 대조되는 사물 사이에 이동순서나 정도의 비교가 가능해진 경우도 있다.

13) 唐善生(2000)에서는 구문에서 부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의 형용사 전환을 직접전환과 간접전환으로 구분하였다.

있다. 즉 직접적인 원인은 부정사의 수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 오히려 예문(33)과 예문(34)의 '福气'나 '名望'는 공간성을 지닌 명사가 '기능전환'을 통해 정도성을 지니는 것으로 파악하여 '명형겸류사'로 명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다. 반대로, 앞의 '气派'나 '规矩'는 정도성의 형용사가 '기능전환'을 통해 공간성을 지닌 체언으로 파악한다면, 이러한 유형은 전자와 반대로 '형명겸류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다.

다시 唐善生(2000)은 또 다른 '명형겸류사'로 명사가 '간접변환'을 통해 형용사로 '기능전환'이 되는 경우로, '很有+명사'의 구식을 형성하는 것에서 찾고 있다.[14] 즉 구문의 형성 과정에서 명사가 형용사로 전환되는 '명형겸류사'라는 것인데, 대개 구체명사에 추상화 접미사(后缀) '气, 味, 腔, 调' 등이나 형태소로 추상화접미사를 지닌 추상명사, 그리고 형용사성 형태소를 지닌 추상명사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그의 개별 어휘에 대한 설명은 매우 복잡하지만,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로 '도량의미(度量义)', 즉 양을 재는 과정을 함유한 의미범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5] 사실 '도량의미(度量义)'는 본래 속성으로 함유하는 것과 구문에서 임시로 획득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는 '위계성'[16]을 지닌 명사나 구문에서 다른 위계의 비교 대상이 되는 성분을 통해 임시로 '위계성'을 지니게 되는 경우이다. 아무튼 중국어에서 명사가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인지적 특징은 영어나 한국어에서 형태변화를 통해 형용사 혹은 형용사성을 지닌 성분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품사 내부의 속성범주에 '도량의미(度量义)'를 함유한 것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 她是个很男人的女人. (남자다운 여자)
(36) 蓝带啤酒很德国，很德国. (매우 독일스럽다)
(37) 权人"一点不能将就"，貌似很现代，很卓越……. (현대적이다)

그는 위의 예문에서 정도부사의 수식을 받는 것은 본래 '很有男人气概', '很有德国风味', '很有现代气息' 등과 같이, '很有+명사'의 구식에서 간접 변환을 거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사한 방식으로 간접 변환을 한 것으로는 '很生活=很有生活气息, 很罪恶=很有罪恶感，很典型=很有典型性 등'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14) 이러한 '간접변환'을 하는 주요 명사로는 지인명사(官僚, 小市民, 男人, 流氓 등)와 처소명사(国际, 东方, 中国, 城市, 上海 등), 그리고 시간명사(现代, 历史, 未来, 春天, 青春 등)을 들고 있다.
15) 한국어로는 '도량의(度量义)'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16) '위계성'이란 의미범주에 계층적 단계를 지니고 있어, 그 자체로 정도성을 표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구문에서 임시적으로 획득하는 위계성은 동위성의 비교 대상이 여럿 존재하게 될 2때, 정도성을 지니거나 시간성을 획득하게 된다.

이상 기존의 세 이론이나 속성의 양범주의 임시전환 문제, 그리고 唐善生(2000)의 견해를 중심으로 중국어에서 명사가 어떻게 '기능전환'을 통해 부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양사의 변이문제는 이미 허화된 양사가 어떻게 변이하는지에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에서 크게 유익한 정보는 없으며, 속성범주의 임시전환 문제는 내부의 의미범주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비해, 唐善生(2000)의 견해는 매우 구체적이지만, 직접 전환을 하는 '겸류사'와 '활용사', 그리고 '很有+名'의 구식 문제는 분석의 일관성이 결핍되었다는 단점이 있다. 즉 '겸류사'와 '활용사'의 구분은 부정사의 수식여부를 통해 구별하고 있지만, 이를 구분하는 명사 내부의 속성으로는 '기능전환'에서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很有+名'의 구문에서 명사는 동사 '有'에 의해 공간성으로 인지되기 때문에, 이후 '有'가 생략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근원의 파악에 유용하게 작용할 뿐이다. 사실 '겸류사'와 '활용사'는 품사분류와는 상관없이 '기능전환'을 표시하는 임시적 분류라고 한다면, 차라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존의 품사명을 재활용한 '형명사'나 '명형사'로 구분하여 표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한다. 또 '很有+名'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사용으로 습관화로 인해 '有'가 생략되어 사용된 것이라는 증거를 확보한다면, 좀 더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어

사실 '겸류사'는 품사의 분류에 속하지 않으며, 구문에서의 기능전환에 따라 파생된 '기능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개별 품사를 유형화한 '사(词)'의 개념과 기능을 근거로 파생된 문장성분인 '어(语)'의 개념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최근 한국어 연구에서도 '명사화'나 '형용사화'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심어와 수식어 등 문장성분을 개별 단어와 동일시하여 '-사(词)'라는 이름으로 지칭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다시 말해, 문장성분인 부사어와 품사인 부사는 분명히 다르며, 주어나 목적어로 기능하는 체언(성분)과 명사, 용언으로 기능하는 술어를 개별 품사인 동사나 형용사 등으로 지칭하는 것은 각 범주의 경계를 정해놓고 스스로 지키지 않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 다시 중국어는 한국어와 달리 각 문장성분의 분포위치가 매우 고정적이어서, 어기성의 문두부사를 제외하고는 체언 앞에 오는 부사어는 없다. 물론 중국어 언어학계에서 품사와 문장성분을 동일시하는 경향은 형태 변화가 없는 한자어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고대중국어에

서도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고 ‘활용’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왔다.

본문은 크게 ‘겸류사’의 형성과 ‘기능전환’이라는 두 개의 측면에서 출발하여, 다시 개사와 조사의 어법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품사전성’을 대비시켜 보았다. 일반적으로 어법분석에서 품사의 분류는 본래 어법 기능에 근거하여 분류한 것이라고 규정되는데, 개별 품사와 문장성분(어법기능)이 형태적인 측면에서 일치성을 지니는 영어와 같은 굴절어에서는 가능한 기준이긴 하다. 하지만, 교착어인 한국어나 고립어인 중국어에서는 품사와 문장성분이 형태적인 측면에서 일치하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 개별 어휘가 지닌 품사의 성질과 구문에서 기능을 표시하는 문장성분의 관계가 정비례하지는 않는다. 즉 한국어에서 기능전환은 대개 임시적 ‘전환형’을 통한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구문을 벗어나서는 완전히 독자적인 단어로 ‘품사전성’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고대중국어의 ‘활용’ 방식 또한 유사한 각도에서 ‘기능전환’을 설명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러한 ‘활용’ 방식은 완전히 ‘품사전성’이 일어나는 영어보다는 한국어의 ‘임시 전환형’을 대비하여 보는 것이 더 언어에 인식 전환을 위한 길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이전 중국어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어순이나 분포위치 등 구조방식을 ‘광의의 형식’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문장성분의 구조 관계를 알려주는 구조조사와 관계사 등 어법성분 또한 형태적 특징으로 이해하는 인지적 접근이 필요하다. 아울러 양사를 통한 계량화(计量化)나 부사어를 통한 양범주의 ‘임시전환’, 그리고 수식어를 통한 의미제한 등 의미적 변화의 측면에서도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록 양사의 수식을 받는 형용사는 비록 형태적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계량화된 공간성을 지니기에, 결코 형용사의 본질인 성질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고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각도에서 보면,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 또한 용언으로 기능한다고 여긴다면, 현재의 구문에서는 명사의 본질인 대상이나 공간을 지시하는 것이 아닌 대상이 지닌 성질이나 공간 내부의 특정한 상황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품사와 문장성분은 서로 다른 별개의 각도에서 출발했다는 인식 전환을 기반으로, ‘양사의 수식을 받는 체언(형용사)’와 ‘부사의 수식을 받는 용언(명사)’은 문장성분이 지닌 속성의 양범주 내부의 질적 전환과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胡明扬,「“很激情” “很青春”等」,『语文建设』, 第4期, 1992.
惠红军,「汉语量词超常搭配的动因分析」,『贵州民族学院学报』, 第1期, 2011.
龙　涛,「量词对名词空间义的表达」,『湖南科技大学学报』, 第7期, 2004.
李　莹,「汉语名量词的范畴化」,『吉林教育学院学报』, 第6期, 2007.
李劲荣,「汉语量范畴研究的若干问题」,『宁夏大学学报』, 第29卷 第5期, 2007.
李宇明,「论空间量」,『语言研究』, 第2期, 1999.
石毓智,「表物体形状的量词的认知基础」,『语言教学与研究』, 2001年 第1期.
沈　林,「试论量词的名词搭配」,『广东外语外贸大学学报』, 第3期, 2002.
谭景春,「名形转类的语义基础及相关问题」,『中国语文』, 第5期, 1998.
唐善生,「“程度副词+名词”与“程度副词+有+名词”结构」,『华中师范大学学报』, 第39卷 第3期, 2000.
邵敬敏·吴立红,「“副+名”组合与语义指向新品种」,『语言教学与研究』, 2005年 第6期.
邵敬敏,「量词的语义分析及其与名词的双向选择」,『中国语文』, 第3期, 2002.
孙　妍,「时间、空间、程度三维视野下的汉语词类连续统」,『文化综合』, 2022年 제10기.
吴相春,「现代汉语数+量+形结构的机制和动因」,『当代语言学』, 第1期(总187期), 2015.
张伯江,「词类活用的功能解释」,『中国语文』, 第5期, 1994.
张谊生,「名词的语义基础及功能转化与副词修饰名词」,『语言教学与研究』, 第4期, 1996.
赵国军,「量的概念与汉语量范畴系统」,『华东师范大学学报』, 第3期, 2015.
赵静贞,「数量词“一丝”的虚用」,『汉语学习』, 第4期, 1983.
邢福义,「说“数量结构+形容词”」,『汉语学报』, 2012年 第2期.

【논문초록】

키워드 Key Words	중문	兼类词, 量范畴, 名物化, 形质化, 功能转换
	영문	Syntactic compound word, Quantity categories, Nounization, Qualitative change, Function conversion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ormation of Chinese 'Syntactic Compound Word' and Functional Transition

Kim Jeong-Pil

Although the classification of parts of speech for individual vocabularies in a language should be analyzed based on a consistent theoretical system and certain standards,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of sentence components may appear in different standards and aspect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language.

In Chinese, there are many 'syntactic compound word' with two or more parts of speech due to the lack of markers indicating morphological changes. In fact, the birth of 'syntactic compound word' was in the setting of the boundary of multifunctional parts of speech in syntax, but rather formed an abnormal grammatical structure in which 'both words modify adjectives' or 'adverbs modify nouns'. This text compares the process of grammarization of anagrams and postpositions from the angle of grammarization from two angles, 'functional transition' and 'transformation of parts of speech'. Based on the 'phenomenon', I approached it in the way of 'utilization' according to 'functional conversion'. In addition, the argument that 'both words modify adjectives' was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spatialization of 'quantity categories' in 'Degreed' from the existing 'specialization' perspective, and also the spatialization of quantity categories 'adverbs modifying nouns'. In the aspect of 'transformation', I approached by deconstructing the outline of a noun through the degree of 'quantity category'.

저 자	김정필 / 金正必 / Kim Jeong-Pil					
논문작성일	투 고 일	2023.08.10.	심 사 일	2023.09.04.	게재확정일	2023.09.06.